

고창군 '귀농귀촌부문' 대상

'제6회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에서 4년 연속 수상

고창군이 명실상부한 '전국 귀농귀촌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9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회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고창군이 '귀농귀촌부문'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은 조선비즈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TV조선 산업홍상자임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며 각 분야에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살려 경쟁력을 확보하고 각 지자체에 맞는 정책을 수립, 모범적으로 수행해 타 도시의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를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고창군은 2007년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요체를 제정하고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 홍보와 안정적 정착지원 등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해까지 9,140여명의 도시민을 유치했다.

또한 민간단체인 (사)고창군귀농



고창군이 9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회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귀농귀촌부문'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

귀촌협의회가 고창군 귀농·귀어촌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돼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귀농귀촌정책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유일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해 전국 귀농귀촌인 창업 메카로 6차 산업과 고

소득 창출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의 거점을 마련하는 등 귀농귀촌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청정지역인 고창에서 도시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내나라 여행박람회' 남원홍보관 운영

10일~13일 서울 코엑스 개최

남원시가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여하여 2015년 미스춘향과 함께 남원관광 홍보관을 운영해 남원 알리기에 앞장선다.

국내의 구석구석을 알려주는 '내나라'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국내외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장으로 300여개 단체 500여개 부스 운영으로 기관단체 및 여행기획사 등이 참여하고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규모 행사이다.

시는 박람회 기간 동안 전북도 9개 시군과 연계 남원 관광홍보관을 운영, 지리산을 연계한 여행상품 및 대표 축제행사 안내 등 집중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코레일여행상품 남원코스

와 수확여행 단체여행상품을 적극 홍보하여 잠재적 미래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2015년도 미스춘향 진 김효진양을 비롯한 3명의 미스춘향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문화축제인 제86회 춘향제를 집중 홍보하며,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 지리산 물레길을 비롯한 체험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종류정보를 소개한다.

남원의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신관사포 부임행차 공연이 박람회장 메인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남원홍보관에서의 이벤트 행사 진행 등 기념품도 배부할 예정이다.

시는 내나라 여행박람회 기간 동안 홍보관 운영과는 별도로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80개 여행관련업체가 참여하는 지자체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설명회에도 참여해 다각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문화도시



임실군, 문화재·사찰 안전점검

임실군은 해빙기를 맞아 지난달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대표 목조문화재와 전통사찰 주변 시설의 위험요소와 방재 설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봄철 화재를 비롯해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코자 도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1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지난 8일 군 관계자, 임실119소방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군 대표 목재 문화재인 임실향교대성전(도지정 문화재자료 제26호)에 대한 ▲화재위험 ▲주변 위해환경 ▲소방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상태를 건축, 토목 및 소방 등 전반에 걸친 합동점검이 실시됐다.

군은 이날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빙기 및 각종 재난안전 점검대책기간인 내달 30일까지 지역내 문화재와 주변 환경을 수시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한다는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노암산업단지 3지구 분양 돌입

음식료·화장품·금속가공 등 입주대상... 3.3㎡당 24만 8000원

남원시가 노암산업단지 3지구를 조기에 준공하고 본격적인 기업유치에 나섰다.

노암동 일원에 조성된 노암산업단지 3지구는 분양면적 21만1천㎡로 3.3㎡당 24만 8,000원의 저렴한 분양가를 자랑한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광주~대구 고속도로를 접하고 있다. 특히 서남원IC 및 노암산업단지 연결도로 공사는 입주기업 물류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예정이다.

근로환경부에서 서울~남원간 KTX 운영으로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며 풍산누리안, 양우내안에 등 신규 주거시설의 잇따른 준공, 노암동 아파트 신축 계획 등으로 주거공급이 원활하다.

또한, 광한투어, 남원예촌, 춘향테마파크 등 남원시 대표 관광지, 다양한 테마의 상설공연, 활발한 직장인 동호회 활동 등은 근로자들이 남원에 적응토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남원시가 노암산업단지 3지구를 조기에 준공하고 본격적인 기업유치에 나섰다.

한편, 남원시는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화장품 생산시설인 CGMP(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산업단지 내에 시설하는 등 화장품기업을 집중화하고 있어 관련기업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결과 3개 기업이 공장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 기업이 남원시와 투자협약 및 입주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제5기 희망대학 입학식

어르신 100여명에게 12월까지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임실군 북부권노인복지관은 9일 제5기 희망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은 심민 군수와 지역기관장을 비롯해 100여명의 입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오는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건강, 영양, 치매, 레크레이션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심민 군수는 "희망대학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조그령' 시대를 맞아 어르신이 행복한 임실 건설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대학은 군 북부권에 거주하는 배움의 열정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동절기 일부 통제된 지방도 737번(남공삼거리~정령치~고리삼거리)을 14일 오전 9시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방도 737번 도로는 동절기 한번 결빙되면 제설작업이 불가능한 구간으로 운전자 안전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통제하고 있었다.

공원사무소는 도로 개방을 앞두고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력하여 제설작업, 경사지 낙석위험제거,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리산국립공원 통제 도로 737번 14일 개방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임실군, 1분기 통합방위회의 개최

임실군 통합방위회의는 9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2016년 1/4분기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군 통합방위위원회와 군부대를 비롯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 파악을 위한 북한정세 동향상 시청을 시작으로 운영방안과 FA 훈련 및 방위태세 준비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세, 북한의 도발 위협 등에 따른 현 안보태세를 중점 점검하고 통합방위태세 추진방향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적성지구 배수개선사업 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전북지역본부 순창지사는 8일(화) 각 지역구의원, 읍면장 현장소장 운영대위원, 수로관리위원을 모시고 순창군 관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6년 신규지구 적성지구 배수개선사업 대한 설명을 가졌다.

박종기 지사장은 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된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농경지 침수방지 및 재해예방 등의 배수개선사업 효과가 조기에 거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순창=구인규 기자